

2024년
창간호

ENMers

| 발행인 | 강승관

| 발행일 | 2024년 7월 1일

| 편집 | 안창규

| 디자인 | (주) 디자인글로리



ENM선교회
Every Nation Mission

Contents

- 04 ENM의 디아포라 | 강승관_ENM 대표
- 06 다르게 삽시다 | 변희관_고문
- 12 은혜로 지내온 인도네시아 선교 30주년 | 강호철, 손수희_인도네시아 선교사
- 14 해바라기 | 오영례_케냐 선교사, 부산지부
- 15 지부소개 | 광주지부
- 21 겨울 수련회 간증 | 강민정_서울C지부 간사
- 24 캠퍼스 사역에서 배운 교훈 | 권태경_서울지부 간사
- 28 캠퍼스 연합사역으로 새로운 학원복음화의 모델을 꿈꾼다! | 한상훈_전주지부 간사
- 32 연합 사역을 위한 발자취 | 최준모_전임 회장
- 34 일꾼과 운동 - 테니스 | 최현준_광주지부 캠퍼스 간사
- 36 기도에 대한 단상 | 장윤현_서울B지부 대표
- 37 낮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 | 민병도
- 38 ENMers Memory
- 40 ENM 후원안내



창간호 표지_
광주지부 캠퍼스 형제자매들(전남대 도서관별관)

목 표

ENM 선교회는 세계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 선교기관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모든 족속과 모든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재생산함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명 성취에 기여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 이니라 하신지라. (창12:2~3)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22:17-18)

17개 지부 및 지부 간사

대표 및 지부간사					(가나다 순)
광주지부	강승관	서울A지부	황만기	수원지부	김상중
광주A지부	김영식	서울B지부	장윤현	수원A지부	안창규
구미지부	한흥조	서울C지부	황성일	울산지부	최준모
구미A지부	이홍재	서울H지부	이양우	전주지부	한상훈
부산지부	유동근	서울J지부	서동욱	천안지부	김형철
서울지부	황성일	서울K지부	허환구	본부 사무국	회장 강승관, 총무 안창규

ENM의 디아포라

강승관_ENM 대표



고린도교회 안에 음식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로마나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든 아니든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전10:25-26)

이것을 신학에서는 헬라어 '아디아포라(Adiaphora)'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며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의 진리와는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의 교회 내에서 세례와 침례, 통성기도, 예배의 형식과 순서, 음식과 기호식품 등이 아디아포라에 속합니다. 요즘도 종종 교회 내에서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획일된 규범이 아닌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ENM은 올해로 출범 24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ENM도 이 아디아포라의 원칙을 따라서 17개 지부가 각 지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비교적 자율적으로 국내외 사역을 해 왔습니다. 모임의 형태나 성경공부, 전도 및 양육 등에 대해 이전의 선교단체와는 다르게 모든 지부가 '일치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자율성이 ENM이 하나 되어 더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이런 '아디아포라'와 다르게 교회가 반드시 일치를 이뤄야 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포라(Diaphora)'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할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나 '이신칭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받아들여야 하며 일치를 이뤄야 할 '디아포라'입니다.

그러면 ENM의 '디아포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ENM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ENM의 목적(Vision)'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교단체(Parachurch)들이 있는데 각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NM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화'라는 지상사명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재생산하라'는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ENM의 각 지부와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은 이 목적에 대해 완전한 일치(디아포라)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활동은 이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반대로 이 목적을 이루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활동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ENM이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NM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와 복음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ENM의 목적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매일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 목적을 이뤄가야 합니다. 각 지부가, 각 팀이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누리면서, 디아포라의 강한 일치로 파워풀한 ENM으로 일꾼 배가의 부흥을 맞봅시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ENM 소식지, 'ENMers'가 이것을 위해 유익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부의 다양한 숨소리와 사역의 모습들을 서로 나눔으로 형제자매들과 각 지부들을 서로 알아가고, 또한 '일꾼 재생산'의 원리와 현장들이 서로 공유되어서 모든 지부에 일꾼들이 많이 생기는 부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를 맞을 때 주께서 ENM에게 맡기신 사명과 열매를 확인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기쁨의 상급들을 듬뿍 나눠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변희관_고문



(민 14: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모호함입니다. 지구촌이라고 할 정도로 나라와 민족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성역할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준도 다 무너졌습니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도 다 모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차이가 모호해졌습니다. 과거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명확하게 구별되게 보였습니다. 요즘은 그 차이가 모호해졌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25살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클럽 가는 것을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누구보다도 술도 잘 먹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술, 클럽을 딱 끊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니 그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느날 예수님을 전하러 이란으로 간다며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이란은 크리스천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인데,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란으로 떠났지만,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영향력은 컸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일로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 30퍼센트 정도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다르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

왜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잘 하는데 왜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향해 반문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제가 32살에 군목으로 입대를 한 뒤 강원도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1년 후 육군 삼사관학교 군종참모 부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임 해서 2주 만에 가장 큰 행사인 졸업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8월에 임관식을 하는데 영관급 최고위층 군종감, 군종차감을 비롯한 1군, 2군, 3군 군종참모 등이 참석을 하였고, 삼사관학교에서는 군종참모와 제가 참석해서 아홉 분의 목사가 모였습니다.

육군 삼사관학교 교장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투스타 소장이셨는데, 임관식 후에 목사님들을 공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더운 날에 다들 맥주 한 잔 하면 어떨까요?”하고 제안을 하였고, 시원한 맥주가 한 잔씩 돌려지고 다들 마셨는데,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잘 차려진 원탁에 둘러 앉아 교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교장이 성찬식에서도 마시니 다들 포도주 한 잔씩 하자고 또 제안을 했고, 모두에게 잔이 돌아갔습니다. 다들 마시는데 저는 또 안 마셨습니다. 좀 전과는 달리 원탁에 앉으니 안 마시는 것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투스타 교장이 “여기 포도주 잔 아직 안 비우신 분은 비우십시오.”라고 압력을 주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군종 참모님이 안절부절못하시면서 제발 그냥 마시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끝내 안 마셨습니다. 이윽고 더 기분 상한 목소리로 재차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마셨습니다. 이분이 호랑이 지휘관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또 다시 노골적으로 “여기 포도주 한 잔 아직 안 비우신 분은 잡수세요.”라고 아주 언짢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군종 참모님이 첫 인상부터 그렇게 찍히면 앞으로 어떻게 교장하고 같이 일하려고 그러냐고 하셨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관이신 군종참모님은 군종 센터 건립을 위해 전국에 모금을 하러 다녀야 하셨기에 주일과 수요일에 설교를 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장은 어김없이 예배 시간 10분 전이면 부관을 데리고 2층 늘 정해진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인사를 드려도 인사도, 악수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달 정도가 흐른 어느 주일 예배시간에 그 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 적이 없으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교장 주최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대 회식을 하는데 보통은 술판이 벌어지는게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회식 때 술을 일절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기와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는 장교들 회식에 술을 내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되,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달라야 합니다. 다름이 영향력이고, 다름이 능력입니다. 다름이 경쟁력입니다.

“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

갈렙은 세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첫째는 시야가 달랐습니다.

보는 눈, 관점이 달랐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은 모두 동일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때투기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쳐서 취하자!” 사람들은 현장만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현실만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치고 대적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사울왕도, 군대 장군들도 아무도 감히 골리앗에게 나가질 못합니다. 아무리 모욕을 주어도 나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양 치던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중요합니다.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한두 끼 정도만 겨우 먹었지만, 그때도 저는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저녁 굶고 물로 허기를 때우면서도 앞드려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 하는 꿈을 꾸었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말이 달랐습니다(민 14:9).

열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고,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밥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 두 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만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늘 왕자이고, 하늘 공주로서 고귀한 신분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기억하고 어깨를 펴십시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삼킨 바 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삼킨 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민 14:28).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옛날 엄마들이 아이에게 코 풀라고 하면서 “홍해라! 홍해라!” 해서 홍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헐뜯는 말,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없애 버리십시오. 대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말이 필요합니다.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갈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잠 23:7).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거짓말 하게 됩니다. 죄 지을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일정한 흐름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동사니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사 32:8). ‘우린 다 메뚜기 같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생각할 때 갈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며,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도저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갈렘은 세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관점, 시야가 달랐고, 두 번째 말이 달랐고, 세 번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렘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갔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때 포로들이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개 돼지 취급 당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전쟁 포로입니다. 왕족과 귀족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선발한 것을 보면 다니엘은 귀족이거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만리나 떨어진 바벨론 왕궁에 갔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어보았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다시 제공된 것입니다. 한참 먹을 십대 후반의 나이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절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걸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이 있었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거나, 아니면 음식을 통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의견이 참 좋았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창 먹을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풀만 먹겠다고, 다르게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ENM 형제자매들도 각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캠퍼스와 직장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르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 지내온 인도네시아 선교 30주년

강호철, 손수희_인도네시아 선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인도네시아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의 고백입니다. 1993년 3월 20일 여호수아 1장 9절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의 첫발을 내디딘 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살아있음’, 즉 ‘불사(不死)종’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참여하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염이 심해져서 의사와 선교 전문가도 만류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선교의 첫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살며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을 살리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2년 전에는 간염 항체까지 생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은 불멸이다”라는 요한 웨슬레의 고백처럼 선교지에서 질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지켜 ‘불사종’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숨을 쉬면서 ‘살아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누리고 나누는, ‘누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처럼 선교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짜내는 선교’가 아닌 자신이 누리는 것을 ‘나누는 선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선교지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자연, 일상, 가정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직장, 사역 등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후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겨울이 왜 이렇게 길지?” 하고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며 한 고백을 들으시고, 겨울이 없는 따뜻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미국에 계신 한 장로님의 헌금으로 저희 집을 개조해서 선교센터를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 다양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김 수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로서 30여 년을 지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선교에 대한 정의는, 선교란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섬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직장에서는 직원들을 섬기며 함께 성경공부 하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IT를 가르칠 때는 대학생들을 섬기며, 제자 훈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센터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는 바자회, 영어 교육 및 의료봉사 등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경영할 때는 한국어 성경공부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섬겼고, 저의 자매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성경공부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을 장학금과 제자 훈련으로 섬기게 해주셨고,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적인 진리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4차원 산업혁명 기술로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웃의 아이들과 형제자매들의 아이들에게 코딩과 로보틱스 과정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섬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을 돌아보면서 그다지 큰 선교의 업적은 없지만, 주님 부르신 곳에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의 섬김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앞으로 창세기 22장 17-18절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이 큰 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영적 세대가 번성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바라기

오영례(케냐 선교사, 부산지부)



핍절한 땅에서도 굳굳함이어!
어떤 꽃보다도 빨리 자람은
위를 향한 너의 끝없는 마음 때문이리라.

단순하고 귀여운 너의 얼굴은
언제나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위를 향하는구나.

오래 바라봄으로
너의 자태는 자꾸만 자꾸만 길어져 간다.

그리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간절하고
기다림이라고 부르기에 절절한 보고 싶음이어!

삶이란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 끝없는 보고 싶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진다.

묵묵히 바라보며 함께 하는 사랑이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향해
너의 마음은 속으로만 뜨겁게 타들어 간다.

너의 얼굴은 태연히 웃고 있지만
그 보고 싶은은 까맣게 찌가 되어
너의 가슴에 영원히 남겨진다.

(53회 <크리스천 문학> 시부분 당선작)





광주지부가 궁금해요?!

강승관_광주지부 대표



지부의 history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ENM(구 Nav.) 광주지부는 77년 9월1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홍승구 형제님이 전남대학교 정문 근처에 '생수 약국'을 운영하시며,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양육함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 후 79년 3월 1일에 홍형제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당시 서울에 계시던 오구탁 형제님 부부께서 광주지부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일가친척이나 연고가 전혀 없는 광주에 오직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신 두 분은 1년이 채 안되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캠퍼스에서, 참 소망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를 영접하고 성경공부에 초대 되었습니다. 당시에 더 큰 모임 장소를 위해 간이 주방을 갖춘 광주 보훈회관 지하를 임대하여 탁구대와 의자를 놓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81년 1월에는 지금의 광주지부 선교의 큰 발이 된 전문인(의료인)과 군인(상무대)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멤버들이 한꺼번에 모이기에는 장소가 좁아지자 광주 시내의 교회들을 섭외하여 오후에 그 곳 예배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부 사역이 해가 갈수록 부흥하여 멤버들이 많아지자, 자체 모임 장소에 대한 필요가 커져서 기도하고 헌금하여 마침내 92년에 광주 근교의 담양군 대전면에 733평 대지에 선교회관을 준공하였습니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형제자매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담양의 선교회관이 완성된 후에 작은 모임은 광주의 임대회관에서 갖고, 큰 모임은 담양 회관에서 가졌습니다. 99년에는 그동안 캠퍼스와 직장인들 중심의 선교가 청소년(중,고)까지 대상이 넓혀졌습니다. 주로 지부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IMF 여파로, 임대로 사용하던 광주회관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전세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힘에 넘치는 헌금을 하여 건물경매에 임차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좋은 가격에 전체 건물과 대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회관 건물입니다. 그 후에 건물은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쳤고, 주위의 집 2채도 추가로 매입하여 현재 대지 약 380평에 연건평 450평이 되었습니다.



2000년 뉴밀레니엄이 열리는 첫날, ENM이 그 첫 발을 내딛을 때 장윤현 형제 부부를 서울대학교(서울B지부) 개척 사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에는 이양우 형제 부부를 한양대 개척 사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광주의 의료인팀이 브릿지 의료인회(BMA)를 NGO 단체로 등록하여 많은 의료인들과 학생들이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2009년 1월1일에는 그동안 30년을 광주사역에 헌신한 오구탁 대표가 이임하고 조형석 형제님이 새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와 논의 끝에 2009년 6월에는 "늘푸른교회"라는 명칭으로 지역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흠어져서 예배하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 부모들 및 전도 대상들이 주일 예배에 초청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또 다른 선교의 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한상훈 부부를 전북대 개척 사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2022년 1월1일에는 조형석 대표가 이임하고 강승관 형제가 새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저는 앞 선 세분께서 일구어 놓은 튼튼한 터 위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맡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0년이 훌쩍 넘는 지부의 발자취를 짚은 지면에 모두 옮기기는 불가능하기에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수북히 쌓인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눈물, 기쁨이 지나간 시간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광주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부 대표님 가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중3때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대학 입학 후 성경 공부와 하고 싶던 중에 ENM(구 Nav.)를 만났습니다. 그 후 교회와 ENM을 함께 하면서 중도에 교제를 떠날 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고 일꾼 재생산의 비전에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지금의 아내인 이미경 자매와 첫 눈에 반해(^^) 결혼하였고, 서로 ENTP(본인) 와 ISFJ(아내)의 전혀 다른 조합으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수빈(30)이는 패션디자이너, 수지(29)는 영상디자이너를 공부하였고, 지금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열심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혹시 다른 지부에서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광주광역시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부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된 사역 대상 캠퍼스나 지역을 소개해 주세요.

광주지부는 광주와 전남북을 큰 터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치,약대), 광주교육대학교, 화순 전남대 캠퍼스(의대), 경인지부(의료인 동문)를 사역지로 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내의 대학 및, 목포, 여수, 순천, 전북지역의 사역지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Q4 사역군이나 팀이나 형제자매들을 소개해 주세요.

광주지부에는 크게 4개의 사역군이 있습니다. 디모데 사역군은 캠퍼스와 청년들, 중국어, 영어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누가 사역군은 의,치,약대 학생, 전공의, 전문의들이며, 다니엘 사역군은 직장인(주로 30-50대로 유초중고등부 사역을 담당)들, 사무엘 사역군은 직장인(주로 50-60대로 가정 및 교회사역을 담당)들 및 시니어(65세 이상)로 구성됩니다.



Q5 지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지방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제 자매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지부 입장에서는 일꾼들이 떠나서 아쉽지만, 한편으로 일꾼들을 보냄으로 ENM 전체 사역에 기여를 하고, 또 다른 지부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역사에서 언급했듯이 지역교회인 '늘푸른교회'는 매 주일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1,2부), 영어예배, 중국어예배 등 8 번의 예배를 통해 세대별, 언어별로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초청되어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의료인 사역은 의료봉사(국내, 해외)를 통해 함께 의료 혜택이 열악한 곳의 환자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봉사에 참여하는 비신자 학생들과의 사귀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는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매년 2회(구정:치과진료, 추석:의과진료) 의료봉사를 다녀왔고 수많은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타 지부와도 의료봉사와 복음전파를 함께 협력하여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파송한 지부 간사나 선교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동아시아, 일본,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인도에 동문 선교사를 포함하여 18 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해외선교가 어려워져, 지부에도 귀국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 파송된 김상호 선교사 가족은 지금 같은 저출산 시기에 무려 6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육적, 영적으로 재생산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지요. 저희들도 그 가족만 보면 너무 흐뭇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철수하여(철수 당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선교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비거주 선교사도 계시며, 또한 복음을 듣고 자라다가 귀국한 선교 열매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몇 년 간격으로 제 3의 장소(나라)로 초청하여 반가운 재회를 하는 선교사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 가정이 선교지에 파송 준비를 다 마쳤는데, 예상했던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선교사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사 훈련 과정을 밟고 있기도 합니다.



지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활동이나 강조점들을 소개해 주세요.

광주지부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강조합니다. (수레바퀴는 모든 ENMer 들이 좋아하죠~)

하나는 "말씀-기도-교제-전도"의 수레바퀴입니다. 거듭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지부 사역의 핵심 강조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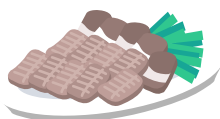
또 하나는 전도(E1: Evangelizing)-확립(E2: Establishing)-무장(E3: Equipping)-파송(E4: Exporting)의 수레바퀴입니다. ENM의 비전을 이루는 틀입니다. 지부의 모든 활동과 목표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NMer가 지부에 방문하신다면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근처 맛집이나 명소를 소개해 주세요.

남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여행은 여러모로 즐겁습니다. 비록 타지역에서 좀 멀어서 당일치기로는 힘들지만, 1박 2일만 내어서 드라이브로 오셔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도여행은 무엇보다도 맛 기행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면 좋지요. 영광의 굴비정식, 나주 영산포의 홍어삼합(삭힌 홍어는 남도사람들이 즐기는 별미입니다), 무안의 빨낙지, 벌교의 꼬막 정식, 담양의 대통밥...등등 먹거리가 하도 많아서 다



말하기가 힘들군요. 그리고 음식 뿐 아니라 다도해 섬(약 2000개)들의 풍광과 예술의 향이 곁들어 있는 지역의 문화재, 예술 유적지 등을 즐길 수 있고, 또 광주의 호남신학교와 기독교

원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역사 박물관, 선교사 묘지 등은 복음이 척박한 광주와 호남 땅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타지역의 ENMer 들께서 저희 지부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테니 미리 연락 주시고 들러 주세요~. 선교 회관 내 2개의 게스트하우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남도의 인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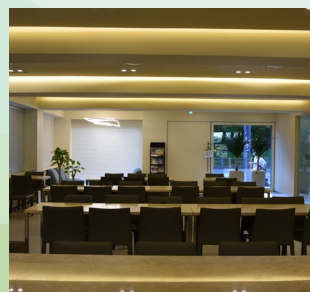


지부 센터의 위치와 특징을 소개해 주세요.

전남대학교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 전남대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약 30년 된 5층 건물로서 원래 상가건물이었으나, 저희가 매입 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각 부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다른 곳에 재건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고, 대신 2년 전에 지하(전체 모임장소)와 일층(식당겸 카페) 리모델링을 하여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 주차장에는 약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 공간을 보유하여 타 지부 형제자매들이 한꺼번에 많이 방문하셔도 주차걱정이 전혀 없으니 꼭 오세요. 메인 홀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일 예배와, ENM 모든 주요 모임을 갖습니다. 1층 카페는, 부산지부의 아름다운 카페에는 못 미치지만, 형제자매들이 커피와 차를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지부명으로 2행시(혹은 3행시)로 지부를 각인 시켜 주세요.

광

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 빛고을 광주에

주

님의 뜻으로 광주지부를 세우시고

지

쳐서 이 땅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영혼들에게

부

지런히 복음 전해 주의 일꾼 삼으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겨울 수련회 간증

강민정_서울 C지부 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 서울 C지부의 강민정 간사입니다. 96년도에 고려대에 입학하여 주님 배우다가 2007년도에 연세대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여 2011년부터 남편인 강성진 간사와 함께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사역 초기에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졸업생들도 생겨나면서 캠퍼스 사역과 직장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2020년에는 애플팀(캠퍼스+직장인)과 헤세드팀(자매 직장인)으로 두 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팀이 연합하여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는 3월 1-2일, 1박 2일로 청평에 있는 펜션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겨울 수련회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간 코로나로 인해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올해 초 오랜만에 겨울 수련회를 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팀과 헤세드팀으로 나뉘고 직장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와 직장인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날짜를 고르다 보니 3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애티나 팀별 친교 시간은 가졌지만 주로 안암동 회관을 이용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서울 C지부 전체적으로 서울을 벗어난 장소에서 숙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야심 차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단체 사진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번 수련회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서울지부의 2024년도 비전이 “영적 예배의 복을 누리는 데서 성장한다(롬12:1-2)”인데, 영적 예배의 기초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음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련회 총책임은 올해 2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대표 정예종 형제가 맡아 진행해 주었고, 그 외 생활, 회계, 워크숍 등은 간사들과 일꾼들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은 애플팀 직장인인 김기환 형제가 복음 기도 1, 2번에 대해서 요약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복음 기도 1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2번은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인데, 2부 소그룹 시간에는 3개의 조로 나뉘어 질문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저녁 식사로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섭취하였습니다. 팀을 나누어 고기도 굽고 식탁 세팅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즐거운 사귄과 연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워크숍 두 번째 세션을 헤세드팀 탁은영 자매가 인도해 주었습니다. 복음 기도 3번은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4번은 “기도할 때에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인데, 탁은영 자매 자신의 경험과 처한 상황 등을 내용과 연관 지어 나눔으로써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2부 소그룹 시간에 3개의 조로 나뉘어 질문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워크샵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팀의 윤신영 형제가 찬양기도회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무엇이 변치 않아/ 온전케 되리/ 주님 나를 택하시’ 등 찬양 가사 속에 복음 기도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젊은 피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 나누며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고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은 멤버들도 있어서 일찍 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형제자매 각각의 방에서 잠들기 전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에 형제자매 그룹으로 나누어져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 함께 큐티 묵상과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3/2 말씀은 마가복음 8:14-26이었는데, 예수님의 누룩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어지는 장면 즉, 예수님께서 두 차례의 안수를 통해 뱃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점차적으로 뜨게 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뜨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숙소를 정리한 후에, 숙소 앞 강가를 따라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이지만 아직 겨울의 끝자락인지라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 사진의 배경이 될 만한 교각 위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짧아 새로운 멤버들과 사귀고 알아갈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갖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남았지만 봄 엠터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도 ‘복음 본색’에 나오는 복음 기도 네 가지를 통해 배운 복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캠퍼스 사역에서 배운 교훈

권태경_서울지부 간사



안녕하세요! ENM 서울지부 권태경 간사입니다. ENM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반가운 소식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캠퍼스에서 사역하며 배운 교훈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에 큰 관심이 없이 살아오다가, 20세기 마지막 학번(1999)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20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아침, 저를 인도해 주신 형제들과 함께 ENM 창립식이 열리는 대전의 배재대학교 강당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창립식 메시지에서 이사야 6:8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로 헌신하실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에, 믿음은 고백했으나 헌신할 자신은 없어서 부끄럽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ENM 서울지부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장교로 군복무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동안 ENM 서울지부 캠퍼스팀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캠퍼스 어시스턴트”로 섬기는 것에 대한 팀 인도자님의 권유를 받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확신한 후 2013년 7월부터 “캠퍼스 어시스턴트”로 캠퍼스에 돌아와 팀 인도자님과 팀원하며 10년 동안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배우고 섬겼고, 2024년부터 ENM 서울지부에서 새롭게 팀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 “캠퍼스 어시스턴트”로의 부르심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정복을 재차 명령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며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캠퍼스로 돌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라는 약속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캠퍼스 어시스턴트”로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들을 깊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입니다.

캠퍼스에 돌아온 2013년 7월부터 처음 6개월 동안은 영혼 징모를 위하여 고려대에서 매일 다수의 학생을 접촉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2명이 영접하였으나 캠퍼스 주일교제로 초청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영접하더라도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된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간이 걸리지만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입생 설문 조사, 선교회 지인 소개 등으로 소수의 관계대상을 얻었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A형제를 소개를 받고 관계를 맺으며 EBS(전도성경공부)를 지속하며 4년 반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후 캠퍼스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인 문제로 영적인 교제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관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형성을 잘하더라도 영적으로 충성되게 배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2018년 선교사 자녀인 B형제를 소개받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B형제와는 청소년 때부터 MK캠프로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미 결심이 분명하여 MTM(일대일 교제)으로 제자의 삶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B형제는 충성스럽게 잘 배웠고, 이후 B형제를 중심으로 3TM(소그룹교제)으로 다른 형제들을 도우면서 재생산의 원리를 본 보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현재 B형제는 스스로 다수의 형제와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과 디모테의 관계처럼 ‘한 명의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삶(또래 공동체)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2022년 후반에 캠퍼스 인도자님들과 캠퍼스 구성원 내 세대별(20-40대) 필요로 인한 주일 교제의 변화를 상의하였고, 2023년부터 캠퍼스를 청년1부(20대 그룹)와 청년2부(30-40대 그룹)로 구분하여 주일 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교제(청년1부 - 학교생활&취미&취업, 청년2부 - 직장&건강&가정생활)로 삶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영적 필요를 나누면서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깊어지고 역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대상들이 공동체에 초청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으로 공생애 기간 제자들과 동거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셨고, 바울은 유대인으로 동족들이 모인 유대 회당에서 간증을 나누며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삶의 깊은 공감과 인식에서 효과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며, 세대별 교제를 통하여 캠퍼스 구성원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큰 유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캠퍼스 청년2부 주일 교제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부득이 지방에 거주하는 (대면 교제가 어려운) 멤버들의 필요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줌 등) 온라인 교제가 보편화 되었는데, 청년2부의 상황에 맞는 하이브리드(Zoom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고안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석하는 효과적인 교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방 멤버들과도 온라인으로 매주 얼굴을 마주하며 더욱 풍성한 교제의 역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이지만 온라인 멤버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때는 반갑게 환영하며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깊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영혼들의 필요를 살필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보기도로 하나 됩니다.

캠퍼스에 돌아온 이후, 개인 기도 노트에 매년 만나는 캠퍼스팀의 새로운 형제&자매들 명단을 기록하고 격일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교제에 성실히 잘 참석하는 멤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멤버들도 있었지만,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기도해주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얹혀주시는 멤버는 직접 연락하여



목소리를 듣거나 약속을 정하여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면서, 특별한 일이 있는 멤버는 자연스럽게 먼저 안부를 나누게 되고 오랜만에 참석한 멤버도 어제 본 듯 반갑게 인사하면서 서로의 친밀함이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한 응답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캠퍼스 멤버들과 물리적 거리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영적, 관계적 거리를 형성시켜주셨습니다. 바다의 빙산이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큰 몸체를 가지듯이, 우리의 삶도 숨겨진 많은 중보대상자들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관계를 향상해 주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오늘날의 캠퍼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전략은 시대를 초월하여 본질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캠퍼스 어시스턴트”의 기간동안 배우게 하신 중요한 사역적 교훈들(관계 형성 - 충성된 사람 - 삶의 복음 - 한 영혼 - 중보기도 등)은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기초를 재발견하고 경험하는 과정이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앞으로 캠퍼스팀의 팀간사로서 새로운 책임들을 수행할 때 낯설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끄실 것이기에, 잠잠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면 모든 사역의 걸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

ENM에서 동역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의 헌신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힘있게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ENM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창세기 12:1-3, 22:17-18)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연합사역으로 새로운 학원복음화의 모델을 꿈꾼다!

한상훈_전주지부 간사



전주 ENM을 개척하면서 초창기부터 전북지역 기독교 명문사학인 전주대학교와 연합사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진리·평화·자유의 교시와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전주대학교의 특성화된 몇 가지 채플 중 제가 동역하고 있는 '성품 채플'과 기독교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 윤리와 적성'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품 채플은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매주 한 시간씩 성경 기반의 성품 교육을 시행하는 채플입니다. 2년 동안 4학기에 걸쳐 성품 채플이 진행되며 매 학기 7개의 성품 주제를 다루는데 2년을 수강하면 총 28개의 성품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품 채플 연합 소그룹



성품 채플은 연합 소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되는데 연합 소그룹은 하림미션홀에서 수십 개의 소그룹이 연합으로 수업하는 채플이고, 소그룹 채플은 독립된 공간에서 리더 한 명이 한 개의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다양한 학과의 7-9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품 채플 소그룹



전주대학교 성품 채플의 특이한 점은 매년 전북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들을 포함한 360여 명이 성품 채플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로 참여해서 지역교회와 학교 그리고 선교단체의 연합사역을 통해 소통과 섬김을 기반으로 복음을 심으며, 교회와 선교단체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캠퍼스 복음화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 채플을 섬기는 소그룹 리더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수강생의 80% 이상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진 비기독교 청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에 필요한 인성을 교육함으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품 채플의 진행방식은 리더와 학생들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이스브레이킹 및 지난 학습을 복습하고 새로운 성품 강의를 진행한 후 각자의 워크북을 작성하며 배운 바를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깨달음과 결단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또한, 매주 배운 성품의 적용과 관련된 미션수행일기와 감사일기를 워크북에 작성함으로 성숙한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품 채플 수업을 통해서 만난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나누며, 또한 개인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함으로 자연스럽게 선교단체나 교회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품 채플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 선교회로 초대했었는데, 그중에 신승민이라는 전주대 한문교육과 학생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품 채플을 통해 만난 학생들은 한 학기를 함께 한 후 다음 학기에는 다른 소그룹으로 변경되어서 지속해서 관계 형성하기가 어려운데, 이 학생은 저와 계속 성품 채플을 하고 싶어 해서 두 번째 학기도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에 참여했던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기 때 ENM으로 초대하게 되었고,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선교회에 잘 적응하였고, 저와 매주 맨투맨 성경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 정도 저희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아르바이트하면서 안타깝게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학생이 선교회와 연결되어 모임에 참석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황무지로 변해버린 캠퍼스에서 지속해서 젊은 세대인 캠퍼스 영혼들을 만나고 관계 형성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 선교회 모임에 초대하고 정착하는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학원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젊은

세대의 영혼들을 매년 마주 대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되고 기도하며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시도함으로 캠퍼스 복음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양과목 수업 전체 사진



다음은 전주대학교 기독교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 윤리와 적성' 강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목은 전주대학교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양필수과목으로 강사진은 전북지역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에 열정과 헌신된 25여 명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의 경험을 되살려서 연합사역으로 기독교에 흥미를 잃어버린 대다수 비기독교 학생들에게 부담 없이 기독교 복음에 다가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양과목 조별토론 1



다음은 학생들의 강의평입니다.

1. 나눔과 섬김을 주제로 하나의 학문으로서 배운 기독교는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재밋는 강의와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자료를 통해 감동하였다.
2. 수업을 듣고 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요즘 같은 삭막하고 자기 일로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3. 내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는 특히 부정적이었다. 내 부정적인 편견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검토해보면, 학생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했다고 마음을 표현한 것이 큰 감사가 됩니다.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당장 수확의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기독교 교양과목 조별토론 2



‘기독교 윤리와 적성’ 수업은 이론강의와 토론 수업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한 학기 총수업일수 15주 중에서 OT, 수시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한 12주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본질(넌 어디서 왔니?), 인생의 책(성경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관계 1(결혼과 가정), 인생의 관계 2(사회 속의 나), 인생의 문제(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인생의 문제해결(예수는 누구인가?), 인생의 회복(변화된 삶), 인생의

목적(나눔과 섬김), 인생의 소명(직업관), 인생의 끝(아름다운 안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과 감동 예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캠퍼스에서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을 접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사고와 의식구조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대 개신교 인구수가 2012년 19%에서 2023년 9%로 최근 10년간 절반가량 감소(자료출처: 한목협, ‘한국 기독교 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하였고, 20대 종교인 수는 2017년 31%에서 2023년 16%로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52%, 대학생의 60%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동성애, 무신론, 반기독교의 높은 비율은 캠퍼스가 ‘타문화권’ 선교지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사역 방법들을 찾고 개척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 각개전투보다는 거대한 반기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하는 협력 사역 형태로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전주대 성품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 강의 사역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주대학교 캠퍼스 사역에 동참하여 배우면서 개인적인 기대와 소원보다 부족한 사역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의 최전선에서 캠퍼스 사역자로서 짊어져야 할 저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등에 지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연합 사역을 위한 발자취

최준모_전임 회장



ENM은 2024년 현재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학복협(학원복음화협의회)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AM(아시안미션)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창립 후 본부 사무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연합 사역을 위한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01 /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의 협력

먼저는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회원 단체 가입과 활동에 참여한 과정입니다. 2000년 1월 1일 ENM 창립대회(대전 배제대학교) 후 본부사무국(회장 변희관, 행정책임 최준모)은 KWMA 회원단체 가입에 필요한 서류(설립취지와 설립목표, 주요사역내용, 그리고 선교사 현황 등)를 작성하여 가입을 시도하였고, 심사를 거쳐 2001년 KWMA 회원단체로 가입되었습니다. 이후 본부사무국은 KWMA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ENM을 홍보하였습니다. 주로 총회에 참석하였고, KWMA 협력기관인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하고 있는 한국선교동향 조사에 적극 참여, 선교사 현황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선교총람] [한국선교백서]에 ENM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KWMA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회원선교단체들 심사에서 ENM이 모범선교단체로 선정되어, 그해 11월 한국지도자포럼 마지막 날, 회장(최준모)이 모범선교단체 상패와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모범선교단체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된 서류 작성과 제출, 그리고 본부사무국에서 KWMA 심사단과 본부사무국 직원들(회장, 총무)의 면접을 통해 모범선교단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부사무국의 대외 행정업무 및 홍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총무의 직무가 연속성을 가져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모범선교단체 상패는 추가 제작하여 본부사무국과 서울, 부산, 광주지부에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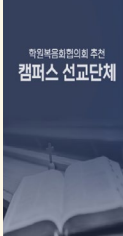


02,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 정회원 허입과 협력

ENM은 전국의 주요대학에서 전도와 양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일꾼재생산의 대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전도활동을 벌이는 곳이지만 반면에 이단들의 활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모든 선교단체는 이단의 활동 방식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1) 학원복음화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

캠퍼스 선교를 위해 ENM도 학원복음화협의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할 필요를 느끼고, 2015년 본부(회장 황만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가입신청을 하였고, 3년의 준회원 시기를 거쳐 2018년(회장 이영섭) 학복협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허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학기가 되면 학복협에서 언론기관을 통해 대학교 내 건전한 선교단체로 ENM이 다른 12개 단체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주관 캠퍼스 선교단체	단체명
CAM	CAMC학선교회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CMF	한국농교회
CMI	국제대학생선교협의회
DFC	제자물선교회
DSM	빛진자들선교회
ENM	세계로선교회

2) 학원복음화협의회 활동 참여

학복협 정회원이 되면서, 회장은 학복협 단체장 모임에 참석하며, ENM의 사역형태가 다른 선교단체와 다른 점들을 잘 이해시켜 원만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는 학복협 단체실행위원으로 단실위 회의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ENM을 홍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한동빈간사(서울지부)가 단실위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 간사 연합 기도회, 9월 간사 축구대회 10월 간사 연합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ENM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주관 캠퍼스 선교단체	단체명
ESF	기독교대학인회
IVF	한국기독교학생회
JOM	예수제자운동
JOY	조이선교회
SFC	학생신앙운동
YWAM	예수전도단



03, AM(아시안미션)과 협력

아시안미션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원자를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선교 플랫폼입니다. 이랜드 그룹이 적극 후원하는 단체로서 3기 장운현 회장이 이랜드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파송단체로 가입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AM의 선교사 후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몇몇 선교사들이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주기적인 멤버 케어 설명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 건강검진, 선교사와 국내 사역자를 위한 쉼터(전국 쉼스턴 리조트) 제공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매년 ENM 국내 전임 사역자에게 설명회에 선물(상품권)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한 지 24년이 지나고 있는 청년 ENM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건전한 선교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지상사명 성취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일꾼과 운동 - 테니스

최현준_광주지부 캠퍼스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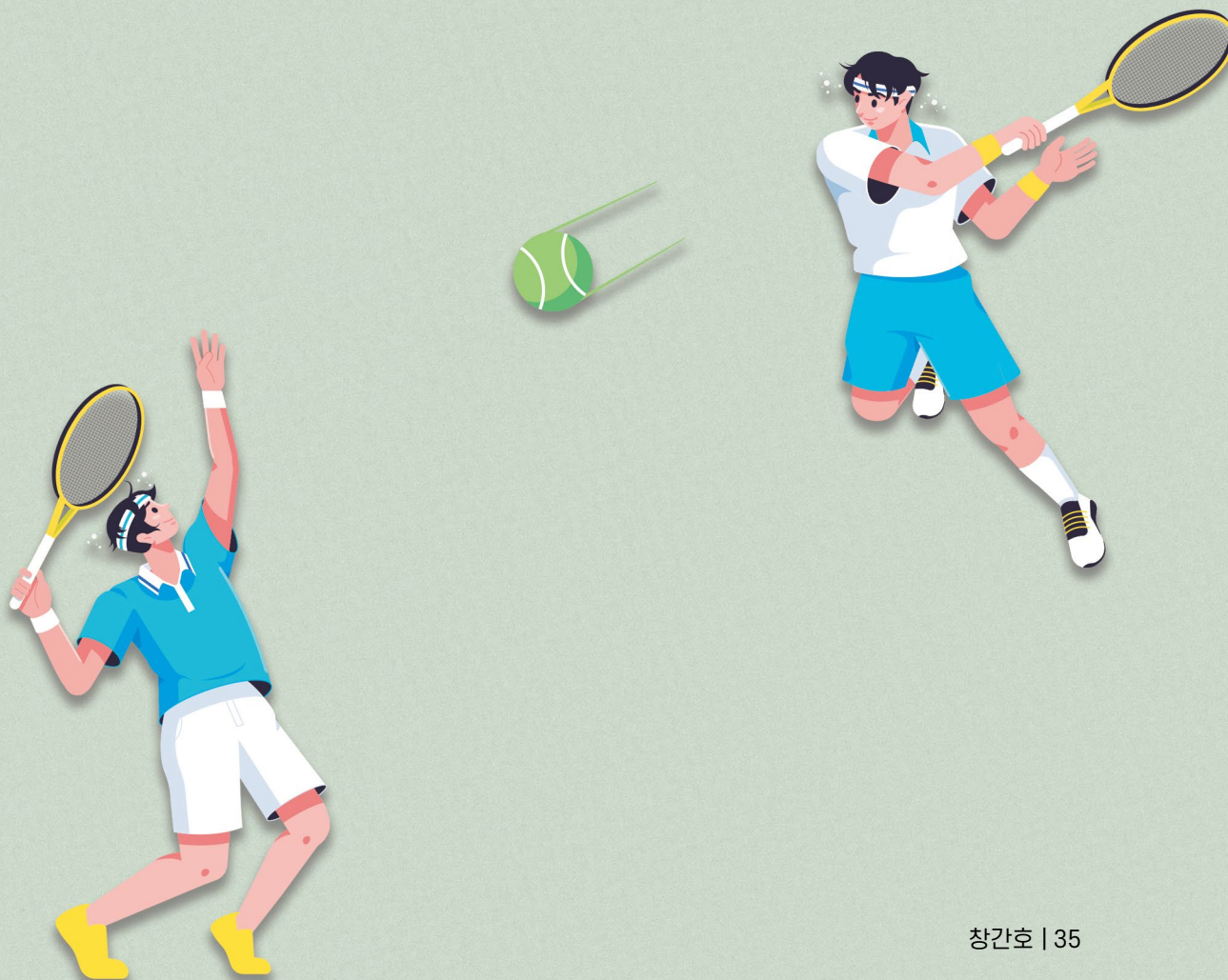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몸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인 천사와는 다르게 인간은 몸이라는 한계에 한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몸이 있으므로 맛보는 유익 또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저는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건강을 유지해 나갑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축구와 씨름을 즐기다가, 고3 때 탁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탁구장에 가다 보니 공부가 소홀해지고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ENM선교회(구 Nav.)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ENM선교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주로 했던 운동은 탁구와 축구였습니다.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형제자매들을 통해 테니스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테니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1-2시간 정도 칩니다.

테니스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좋은 점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탁구공보다 훨씬 큰 공을 라켓으로 칠 때, 그 타구감과 뻗어 나가는 공의 모습이 탁구보다 훨씬 박력 있습니다. 테니스는 참 기술이 여러 가지입니다. 회전을 아래로 주어서 쇼트를 주기도 하고, 회전을 위로 주어 공이 튀어 오르게 하는 탑스핀을 걸기도 합니다. 상대방 머리 위로 넘겨버리는 로빙이 있고, 바운드 되기 전에 치는 발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로 다양한 곳을 향해 다양한 힘과 스피드를 순간 결정해서 쳐야 합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머리를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테니스는 역동적입니다. 골프처럼 가만히 치는 운동이 아니어서 뛰어나고 팔로 휘둘러야 합니다. 땀을 흘려 운동하는 맛이 납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여 팀워하는 운동입니다. 동호인들은 주로 복식만 치기 때문에 내 파트너와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끝내기보다 찬스를 만들어 주어서 내 파트너가 쉽게 끝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승리하기 쉬운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파트너가 실수할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면 금상첨화인 운동입니다. 형제자매들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줄 마음들이 있으므로 그런 실수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높은 사람과 실력이 낮은 사람을 매칭해서 파트너가 되게 하므로

실력이 낮은 사람들도 시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테니스는 신사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처음 칠 때는 서로 모여서 악수하고 시작하며 처음 서브 넣을 때는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테니스를 너무 즐기다 보니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핸디캡을 주신 것 같습니다. 테니스 때문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무릎연골파열이 되었고, 언젠가 미끄러지면서 손을 짚다가 약지인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제는 주 2회 이상 치면 무릎이 아파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니스가 참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빠져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경계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몸이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칠 수는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교제할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 테니스 게임을 치고 싶습니다.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형제자매들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서 건강하게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단상

기도의 순수함을 회복하라

장윤현_서울B지부 대표



(골 4: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국어이자 일차 언어이다.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이 생기면 저절로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 기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합니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 오셔서 함께하신다. 우리는 반응하고 영접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기도는 이렇게 단순하다.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도를 쉽게 한다. 그러나 기도가 단순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단순한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함이 실망과 의심으로 무너지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이 생기고 미신의 실타래에 얽힌다. 기도를 알라딘의 마술 램프나 보물섬을 여는 주문으로 여기기도 한다. 남모르는 신비를 은연중 드러냄으로 기도 엘리트로 인정받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우리 자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순수함이 회복된다. 사고와 이해력과 상상력을 훈련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기도 그 자체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결재를 요청하며 들이치는 청구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존재지향적 대화이다. 일정이 바쁘다고 생략하고 건너뛰는 일상 중 하나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칠 수 없는 호흡이다.

기도는 분주한 일정을 십자가에 못박고 십자가 그늘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이다.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 같은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눈물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벗들의 영혼을 덮고 있는 오해와 무관심과 증오의 독을 씻어내는 시간이다. 영혼 속에 동지 틀고 누워있는 불안 걱정을 해부하고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제압하는 시간이다.

기도의 숨결로 나의 영혼에 아름다운 길을 내사,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나를 보게 하소서!!

낮은 풀을 이기지 못한다

민병도

숫돌에 낫날 세워 옷자란 풀을 베면
속수무책으로 짹! 잘려서 쓰러지지만
그 낮이 삼천리 강토의 주인인 적 없었다.

풀은 목이 잘려도 낮에 지지 않는다.
목 타는 삼복 땀별과 가을밤 풀벌레 소리,
맨살을 파고든 칼바람에 울어본 까닭이다.

퍼렇게 버린 낮이여, 풀을 이기지 못하느니
낮은 매번 이기고, 이겨서 자꾸 지고
언제나 풀은 지면서 이기기 때문이다.

낮이 풀을 이기지 못하듯
세상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은 지면서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삼천리 강토 이 땅에
오대양 육대주 땅끝까지
푸르른 복음이 가득하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ENM을 이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ENMers

Memory





ENM 후원 안내

후원하시는 헌금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캠퍼스 간사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매월 1만원 1구좌 이상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가능하며
후원 회원 명단은
다음호 'ENMer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46601-01-443847

세계로선교회(ENM)

